

일품공원 공연장 완공 코앞

순창군, 1억5천만원 투입 공정률 90% 넘어... 군민 문화 중심지 역할 기대

순창읍 일품공원 내 소공연장이 완공을 눈앞에 두면서 일품공원이 군민 쉼터로써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고 활용도가 대폭 높아지고 있다.

군은 기존 순창읍사무소 옆에 위치한 대형 공연장과 별도로 일품공원내 바닥분수옆에 64㎡의 규모의 소공연장 공사가 공정률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했으며 무대와 비가림 시설인 막 구조물을 설치해 20여명 정도가 무대 공연이 가능한 구조다. 군은 7월 중 완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품공원에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문화공연이 월 2회 진행돼 군민들의 문화공연기회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연장이 일품공원

과 떨어져 있고 무대가 너무 커 공연 감상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번 소공연장 설치가 이런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관내 음악동아리 공연, 학생 청소년 예술활동, 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이 가능해져 일품공원이 군민 문화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일품공원은 읍내 하 나밖에 없는 공원으로 일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에 군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소공연장이 완공되면 서울의 마로나에 공원처럼 군민들이 스텝 없이 공연을 즐기고 함께 어울리는 문화공연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순창읍 일품공원은 지난 2015년 완공 했으며 군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운영으로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군은 나무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소나무, 단풍나무, 백일홍 등 총 8종 47종의 나무를 추가 식재해 녹지 공간을 넓혔다. 특히 소나무는 각 읍면에서 기증 받은 나무로 수령이 오래돼 공원의 경관 품격을 높이는 데 한몫 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본격적 여름이 시작되면서 바다 분수는 7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운영해 더위 쉼터로서의 역할도 하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인구절벽 극복 안간힘

저출산·전입유도 위한 홍보책자 제작·배부

남원시가 저출산 극복과 인구 늘리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시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을 막고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행복한 삶을 담은 그곳, 지금 남원에 오면...'이라는 제목의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남원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출신·교육, 귀농·귀촌, 기업·취업, 문화·자연의 5개 범주로 묶어 남원시민들과 남원시에 관심 있는 예비 시민들에게 제시하였다. 유관기관 및 읍면동에 4,000부를 배포하여 인구늘리기 운동 홍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책자에 수록된 정책과 남원시 장점들을 일별함으로써 시민들은 놓치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 예비시민들은

전입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라 시는 기대하고 있다. 책자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방장려금 지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의 다채로운 노력만 담긴 것이 아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국악공연을 연중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거나 지리산부터 설진강까지 백리숲길이 이어졌다는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무형의 자랑거리도 포함되었다.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살기 좋아야 하고, 살기 좋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보기에 행정과 환경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는 평범한 사실에서 제작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책자를 접한 시민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통의약 난임치료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장착금지원, 애향장려금지원, 으뜸인재육성사업 등 남원시민도 잘 알지 못했던 혜택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평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인구감소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출산과 전입을 독려했던 전에 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자문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책자를 마련했다"고 제작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오늘 7월 인구정책전담팀을 신설하여 인구 늘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양심화본 설치 눈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노력

임실군이 쓰레기 비정상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 보다 의식전환을 유도한 '양심화본'을 설치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부터 생활쓰레기가 전주권광역 소각자원센터에서 처리됨에 따라 쓰레기 혼합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왔다.

특히 지난해 임실을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32명으로 8개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비정상 배출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29일 임실읍에 '양심화본'을 시범 설치했다.

호리우스, 아스타 등을 심은 길이 75cm, 폭 75cm 크기의 양심화본을 향교입구, 임실교에 2개씩 총 4개를 설치, 불법투기자의 양심을 깨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투기된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렸던 공간을 쾌적하게 바꾸고 의식전환 캠페인 홍보물료 활용할 수 있어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양심을 깨우고 주민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계



임실군에 설치된 양심화본.

절 깨끗하고 아름다운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보건의료원 순환버스 도우미가 버스에 탑승하는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

순창보건의료원 순환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순환버스 이용자의 승·하차 사고예방과 진료실 안내 등을 위해 내원환자 도우미를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순환버스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오전에는 30분간격, 오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총 11회를 운행하였고 평균 이용객은 100여명으로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왔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이고 관절염, 허리통증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버스를 타고내릴 때 불편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도우미의 부축을 받아 안전하게 타고 내릴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내원환자 순환버스 도우미는 고령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 다면서 "앞으로도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방문객 발길 사로잡는다

군인·학생·직장인 등 음식값·숙박료 특별할인

육군 35사단과 임실제강 이전 등으로 임실을 찾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과 지역외식업체회가 아주 특별한 할인행사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7월 1일부터 임실군과 임실군의 식업협회는 35사단 군부대 인근 음식점 10개소와 숙박업소 4개소가 신병 입영일과 퇴소식날 지정식당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군인가족과 군인에게 음식값과 숙박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평소에도 군복을 입고 업무를 이용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인혜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군과 외식업체회는 학생의 날엔 학생들에게, 기업인의 날엔 직장인에게, 현충일엔 보훈가족에게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외지 방문객에게 '후한 임실 이미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지역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임실읍내에는 과거와는 달리 35사단 이전으로 군 장병과 군인가족의 임실 방문이 늘고, 일진제강 이전까지 더해 밤낮할 것 없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많이 들어서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 군과 외식업체회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업소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소재 군부대와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내고장 음식과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임실군은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10% 할인행사에 참여해준 업소들에게 감사와 함께 행정적지원도 약속드린다"며 임실군으로 출퇴근하는 1만여명의 직장인과 군부대 군인, 학생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선정

남원시 하정동 '예가람길'이 행정자치부가 지역경제 활력의 주역으로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문화와 예술이 감동처럼 흐르는 길'로 거듭나게 되었다.

예가람길은 원도심의 중심 지역이었으나 신도심 개발이후 공동화 되는 등 침체현상을 보여 왔다.

전국 27개 지역이 공모사업에 응모해 1차 서류심사와 행정자치부 평가단의 2차 현장실사 등을 거쳐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 지역 및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주도의 차별화된 전략, 지역의 입지조건, 청년창업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 되었다.

이번 사업은 광한루 원과 남원예촌, 원도심 전체를 잇는 매개지역인 하정동 '예가람길' 구간에 골목 내 체류형 다목적관광, 골목주민 활동공간 조성, 유류상가 등을 활용한 청년창업자 플랫폼 기반 마련하여 신규 구성원 등을 유입하는 등의 활성화사업을 골목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일본뇌염 주의 당부

임실군은 지난해 보다 약 2주정도 빠른 지난 29일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감염된다.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나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환자의 대부분이 4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주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따라서 취침시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풀이 넓은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특히 예방접종은 전 연령이 가능하며 생후 12개월부터 만12세 아동은 필수 접종 대상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 하수구, 하천 등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 예방을 위해 모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